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감사절은 오는데!

- 오늘 태신자 초청 · 감사찬양예배, 다음주 성찬식 · 임직식 -

교회 설립 9주년 및 2000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교회는 설립 당시 50일간 사명을 받기 위한 기도회를 거쳐 교회창립을 선언한 것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사명자대회를 갖고 기도와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명자 대회는 이번주로 마지막 행진을 하게 된다. 새벽기도, 24시간 기도 릴레이, 다니엘 기도 등에 적극 참여하고 70인전도대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기도해 오던 태신자를 초청하는 날이다. 태신자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야 말로 (롬 15:16)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다. 초청받은 태신자들은 예배후

3층으로 안내되어 다과회와 환영회를 갖게된다.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박성선 집사 지휘, 조은주 · 강민희 집사의 반주로 진행될 찬양은 감사의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주의 성사를 순서로 찬양을 한다. 오 르간 피아노 이종주, 테너와 바이올린 협주 등의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음주 I, II, III부 예배시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이 거행되며 추수감사헌금을 바친다. 찬양예배시에는 인수집사 10명, 권사 37명이 임직을 받는다.



입당 감사 10대 행사 ~*

위원회 조직 및 첫모임

이 땅위에서 또 하나의 이적을 서울교회를 들어 쓰심으로 세상에 보여주신 주님은 대망의 새 예배당 입당을 금년 성탄절로 장하였다.

크신 은혜와 가이없는 사랑으로 택함받은 우리를 그 청지기로 삼으셨기에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려 드리며,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10대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각소위원회와 위원들은 오늘 3부예배후 본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행사의 세부사항을 의논하게 되며 적극 참여 해 줄것을 당부하고 그 조직은 아래와 같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귀한 행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되기를 기대한다.

- 지도 : 이성득 목사 • 위원장 : 정병무 장로 • 총무 : 박두호 장로
- 서기 : 김태기 장로 • 회계 : 성준경 장로

성경암송대회 시상식 갖다

교회설립 9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10일에 거행 되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총 16명이 출전하였으며, 이번 대회의 범위는 마태복음 5, 6, 7장으로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사랑상 : 함은희 권사 • 믿음상 : 최용걸 집사 • 소망상 : 김보연 어린이
- 장려상 : 반영환 성도, 박내원 집사, 김대웅 집사, 김소연 어린이

직능별 선교회 조직되다.

학원선교회, 의료선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총회를 거쳐 회장단이 선출 되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대명을 수행키 위한 직능별 선교회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 실업인 선교회 - 회장 이영기 장로
- 학 원 선교회 - 회장 홍성주 집사
- 의 료 선교회 - 회장 안인호 집사

순	항 목	조 직	조 직 편 성				
			지도	소위원장	총무	서기	회계
1	입당 감사 부흥성회	이성득	최종시	송인권	김성준	오승민	1/17~19
2	입당 감사 미술전	이성득	전기섭	전광영	김예환	이명아	2/21~3/21
3	서울신학 심포지움	정운돈	이원형	이학주	정호진	윤갑숙	2/22
4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간담회	이규정	이원생	오광환	장양일	최양혜	4/26
5	뮤지컬	정운돈	이영기	허희철	최형열	이수자	4/28
6	탈북남민통기 시민 걷기대회	이규정	박두호	김세재	우상태	이남성	5/19
7	입당 감사 찬양제(칸타타)	고경선	김상철	이태상	백수남	김복순	5/26
8	사랑의 헌혈 및 장기기증식	지혜영	왕경래	하인선	안인호	이승철	6/6
9	단기선교팀 파송	고경선	노승성	김인수	이양철	정동호	8/13
10	아웃도기 바자	정운돈	김태기	박두영	이관규	김형택	9/19~21

새해 100교회 운동 후원자 신청 접수

전도위원회에서는 새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 후원자 접수를 받고 있다. 100교회 운동본부에서는 개인이나 부서별로 올해에 결연한 교회를 내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행정상의 확인을 위해 모두 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 일에 새롭게 참여할 성도들의 신청도 기다리고 있다. 신청문의는 사무국으로.

2001년도 위원회 · 기관 부서장, 임명 명단

1. 위원회

명단	임명명단	위원장	서기	회계	지도
당회서기	정병무				
예배(위)	최종시	신용식	이관규	이성득	
찬양(위)	김상철	김영준	전기섭	고경선	
교육(위)	이영기	박두호	민순구	이성득	
교구(위)	박두호	윤찬오	임훈규	정윤돈	
전도(위)	왕경래	최종시	최학인	이규정	
선교(위)	김영준	정병무	김 사무엘	이규정	
구제(위)	김태기	윤봉준	이완형	지혜영	
관리(위)	하영수	임훈규(차량)	윤찬오(식당)		
재정(위)	윤봉준	이영기	박두호		
건축(위)	성준경	하영수	이영기		
동산(위)	윤찬오	김상철	왕경래		
인사(위)	이완형	김태기	위원:김태기, 최종시, 왕경래, 하영수, 윤찬오, 이번생, 최정자		
10주년 역사 편찬(위)	임훈규	서문석		이성득	
상조(위)	민순구	김영주	안분선	고경선	

2. 기관

명단	임명명단	위원장	지도
출판국		노송성	고경선
교회강신연구원		민순구	정윤돈
권사회		(1) 심재을(회장)	지혜영
		(2) 이혜순(회장)	
스데반회		이복규(간사)	이규정
비전 2020		이번생	정윤돈
경로대학		왕경래(학감)	이성득

2001년도 교구장

- 1교구:하영수 • 2교구:전기섭 • 3교구:정병무 • 4교구:임훈규
- 5교구:민순구 • 6교구:노송성 • 7교구:이영기 • 8교구:최학인
- 9교구:윤봉준 • 10교구:최종시 • 11교구:왕경래 • 12교구:이번생

2001년도 찬양대

- 위원장: 김상철 • 서기: 김영준 • 회계: 전기섭 • 위원: 각 찬양대 대장

2001년도 교회학교

- 위원장: 이영기 • 서기: 박두호 • 회계: 민순구
- 위 원: 각 교육국장

위원장	부장	남자부감	여자부감	지도	
교육1국 (노송성)	유아부	이복규	김시환	전용순	조대영
	유치부	이계홍	권장환	최일춘	최지혜
	유년부	조정식	최양진	김숙자	이영희
	초등부	이상호	마상수	이은희	신미숙
어린이후예배	임옥균	김혜언	임송자		
교육2국 (박두호)	중등부	최형열	이태원	김운자	용석범
	고등부	오광환	박병수	이용자	이태훈
교육3국 (정병무)	대학부	임상현	정호진	권순단	정윤돈
	청년부	송인권	최차순	김예환	고경선
	새가정부	김형택	이동만	최양혜	이규정
교육4국 (민순구)	사랑부	이승우	김현영	남태순	이성득
	에바다부	홍성주	이강인	신동기	
	새가족부	김세재	김재술	이영희	지혜영
영어성경부	김인수	김 훈	윤갑숙		
교육5국 (이영기)	30대부	이태상	서춘식	황정임	이만열
	40대부	유중관	이남성	정연택	이만열
	50대부	황정옥	윤성남	최금자	김영한
	60대부	신순우	장양일	이영자	우심화
	70대부	박두영	이재윤	김경희	우심화
5 국	19개 교회학교	19명	19명	19명	16명

찬양대	직임	성명	지휘	반주	
가브리엘	대장	김영준	허희철	Organ	
	부대장	정동호		Piano	양경실
할렐루야	대장	성준경	박정선	Organ	조은주
	부대장	김금준		Piano	강민희
임마누엘	대장	김상철	김선희	Organ	안진선
	부대장	백수남		Piano	백송희
배들레헴	대장	이완형	임훈규	Organ	
	부대장	신용식		Piano	홍혜란
호산나	대장	전정순	서희숙	Organ	홍혜란
	부대장	김순자		Piano	
시온	대장	전기섭	강민희	Organ	조은주
	부대장	오형철		Piano	김지윤
글로리아	대장	민순구	이태훈	Organ	
	부대장	천정화		Piano	문형순
필그림중창단	대장	임상현	고경선	Organ	김재연
	부대장	송인권		Piano	유수진
아멘관현악단	대장	김상철	김복순	Organ	
	부대장	김복순		Piano	이승민
은빛	대장	이응선	이보우	Organ	
	부대장	백영희		Piano	김명숙
HandBell팀	대장	김규태	이미리	Organ	
	부대장	안정옥		Piano	
갈렙	대장	민순구	이태상	Organ	
	부대장	김정희		Piano	백정순

「2000사명자대회 이번주 마지막 행진」

지난 10월 8일(주일) 발대식을 갖고 시작한 2000 사명자 대회가 다음 주일 교회 설립일을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행진을 하게 된다. 지금 사명자 대회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야소스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입으며 뜨거운 기도와 전도로 계속 되고 있다.

- 주간 사명자 대회 일정

각 행사는 지난해에 기재된 일정과 같으며 특별 새벽기도회에 대한 일시와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 특별 새벽기도회 주관부서

- 20일(월) : 3,4교구, 할렐루야, 소망부, 마리아, 진행분과

- 21일(화) : 5,6교구 임마누엘, 새가족부, 새가정부, 엘리야, 호호분과
- 22일(수) : 7,8교구 배들레헴, 유년부, 초등부, 에스더, 전도분과
- 23일(목) : 9,10교구, 호산나, 중등부, 모세, 기도분과
- 24일(금) : 11,12교구, 시온, 고등부, 한나, 아브라함, 교육분과
- 25일(토) : 전교인 총동원, 연합찬양대

수고이고도 기쁨이 넘치는 집사 되기를

탁경준 집사(5교구)

6개월간의 피택인수집사 교육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참으로 낙약하고 용서받지 못할 저같은 죄인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시고자 피택해주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간 공부했던 귀한 내용들은 (집사론, 부르심과 사명, 성경적 교회론, 직분자의 지도력, 청지기와 예배모범 등 14과목) 이제는 실천에 옮기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과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속에 내가있고 나에게 주어 진 경륜을 가지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주신 때(카이로스)가 바로 지금이라고 각오하면서 어떠한 압박과 수고와 시련을 받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자신이 탄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주님의 진리라고 보면서 우선 소속된 새가족부 교사로써 그동안 새로 영접되어 오시는 새가족의 정착을 위하

여 저의 작은 경륜을 펼쳐어 꼭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방법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드릴 것이며 그기도의 불씨가 대치동 새성전 시대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집사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영아, 유아를 사랑해요

이자혁 (2교구)

세상에서 가장깨끗한 영아 유아를 사랑해요.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생명들을 보노라면 왠지 내 마음이 편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 이름다움을 주셨는데 잘 보살피고 양육시켜 하나님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터져나오면 엄마닭은 먹는법을 가르치지요, 생명을 주신 값지고

보배로운 생명들 어려서부터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한생명을 귀히여기는 유아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성전을 바라보며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더욱 큰사랑과 기도로 여러분이 맞기신 자녀들을 보살피며 지도해 드리는 유아부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처음 부모님손을 떨어질땐 울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변하여 내것만을 알고 남을 모르던 모습이 나누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 어느새 유치부로 올라가는 귀엽고 의젓한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요

유아부를 자랑할게요.

조대영 전도사님의 훌륭한 지도방침과 가장 적합한 아이들 시기에 적용되는 학습적용과 전기성장로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주로 아이들을 담당하시는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답니다. 더 많은 교사님들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함께 기도하시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유아부 홈페이지도 열려있구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세요.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생명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을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제 18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면서

하영수 장로(1교구)

목회자 신학세미나!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젖어오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주신 첫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하루같이 지내왔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말씀을 체철헌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 하셨습니다.

눈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드릴 처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안정이 되기도 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미 대륙으로 옮겨가서 지쳐할 집을 짓기도 전에 성전을 먼저 지어 봉헌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이 사명 까닭에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이 사명으로 인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각처에

서 많은 주의 종들이 약속을 하고 기다렸다가 오는 것 같았고 모래밭에 물이 스미듯 말끔은 살아서 역사 하였습니다. 큰 교회 좋은 시설, 편리한 교통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아직도 찬 공기가 늙으신 권사님들의 살을 에는 3월의 어두운 새벽에 쌀을 씻어 불을 지피고 채소를 다듬고 삶아 김밥을 만들고 주름진 손에 단무지와 라면국물을 담은 밥상을 차려서 먼 길 오신 주의 종들 앞에 내가기를 계속한 9년 세월은 곧 YMCA시대의 마음을 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려는 열망과 세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구별된 삶으로 말기운 양무리에게 기쁜 꿀을 먹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정에 휴식조차 반납하고 먼길을 오시는 종들의 걸음은 거룩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간혹 이것저것 챙기시다가 약속된 강의 시간에 늦으실 때는 큰 죄라도 지은양 미안해하시는 모습은 참목자의 향기였습니다. "강의 내용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가장 아름다운 세미나입니다. 너

무나도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 할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아끼시는 종들이지만 지나치듯 던지고 가시는 모습은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의 교제일 것입니다.

이제 제 18학기 세미나 10년째 강의는 새 예배당에서 시작 할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바른 목회사역의 능력이 되도록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된 세미나가 되며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교제하는 장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고 일생동안 주님의 향기를 내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김치동문회를 활성화해서 많은 참여와 더욱 발전된 세미나 행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종들의 소리가 많음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하며 나의 역할은 그 절반도 못 된다" 하시는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기도와 정성을 다 하기를 소원합니다.

*

파수꾼의 하루 밤

최차순 집사(4교구)

석에서 왈차지결한 일꾼들의 소리와 망치소리가 적막을 깨고 들리는 듯 하고 바쁜 세상살이에 형클 어졌던 나의 마음속으로 웅장한 예배당의 모습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비춰짐을 볼 수 있었다. 문득 어느 권사님께서 "장로님,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군고구마를 먹으며 4교구사랑을 나눴시

다."라는 제안에 일체히 동의 하였다. 도심속의 모닥불은 일어있던 우리 마음들을 녹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진하게 배어났다.

목수의 손에 버림받아 어둠속에 아무렇게나 뒹굴던 나무토막 같은 미련한 저희 인생들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파홀림의 사랑을 빨갛게 달아오르는 숯불속에서 볼 수 있었다. 예배당 꼭대기 매달려 있던 달빛은 새벽노을에 잠기고 우리들은 파수꾼의 하루밤으로 불려주신 주님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렸다.

스산한 초겨울 바람이 귀 끝으로 스치는 저녁, 파수꾼이 되기위해 새 예배당으로 달려갔다. 부지런한 장로님 가족과 함께 몇몇 집사님들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모닥불은 타올랐다.

4교구 파수꾼들은 모닥불 주위로 옹기종기 둘러앉고 가슴속 깊숙히 묻어두었던 주님 사랑한다는 체철헌적 고백과 아련한 옛 추억들의 화제가 군고구마 내음으로 구수하게 익어가고 이내 밤은 깊어만 갔다.

밤이 깊어지자 금방이라도 성전들 여기 저기 구

제1권사회장 1년을 돌아 보며...

이옥현 권사(12교구)

1999년 11월 어느날 저녁에 홀로앉아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했더니 '나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입니다'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00년도에 제1권사 회장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1년 수고하시고 편히 쉬시다가 천국에 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생각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양 어깨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 같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자려고누워도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하고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사명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고 아울러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말은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었사오니 끝까지 충성 하는 일꾼이 되어보자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면 못할것이 없다. "하면된다", "열심히 해보자"라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12월 시작하여 2000년 11월까지 12개월동안 권사회의 진행자로서 한번도 빠짐없이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1권사회 임원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님들께서 저를 기도로 밀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고마움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1권사회원들은 모두가 70, 80이 넘으셨습니다. 몸으로는 힘든 일을 하실 수 없으나 오직 한가지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그 기도 새 예배당에 가서도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후손들을 위해 남은 여생 기도로 충성하시는 우리 제1권사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년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중 (7교구, 신임청년회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 28:1)

주님의 병사로 부름받은 부족한 중 인사 드립니다. 비록 사람이 뿔더라도 택하시는 분은 주님 인줄로 믿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믿음으로 1년간 섬기려는 몇 가지의 작은 다짐을 적습니다.

첫째, 한 영혼을 섬기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올바르게 부름받고 훈련된 한 명의 일꾼으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한 지체의 영적 성장에 충실하는 청년부가 되며 둘째, 꿈을 갖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젊음이란 가능성을 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셋째, 청년다운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젊음을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곳에 쓰기를 원합니다. 밀알처럼 생명력 있고 누룩처럼 퍼져 나가는 영향력 있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생활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신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할 뿐입니다.

"천막속에서 사랑을..."

이영주 집사(3교구)

울때가 있으면 웃을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좋은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 하려합니다. 그동안 이 옥탑에서 나는 사랑을 생각하니 다시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비가 오는 날에도 천막집이 있기 전 우산을 펴놓고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게 대접하라고 새벽부터 배운 고추를 하나하나 정성들여 다듬어 주시며, 손에 허물이 벗어지면서도 마늘을 끼주시고 젊은 이들의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랑으로 수고 해주셨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출석상을 드려야 할 만큼 멀고 가까운 곳에서 손이 얼어 물건이 잘 잡혀지지 않을때에도, 사막에 온 것처럼 숨이 막히는 여름에도 아

랑곳 하지 않으시고 집일을 뒤로한채 달려와 수고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

주일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주시신 고마운 손길, 무거운 밥솥을 드는 일, 쓰레기 버리는 일, 남자 집사님들의 수고, 마무리 작업이 어려울까봐 끝까지 힘써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랑인지요. 하나님의 일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번을 정해 김치담그는일에 힘써주신 여전도회원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편한점을 참아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새 예배당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수고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 ■

- 김성철, 윤정희 성도 부부(4교구) 득남
- 박영주 성도(4교구) 파이프 오르간 귀국 득주 회 11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햇불선교센타 사랑성전에서
- 고석태, 장선자 성도(12-11다락방)이사 용인시 연월마을 삼호벽산@ 113-703호

■ 이대중 목사 방송실고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김인관 집사, 남미희 권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에스더 여전도회 - 20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2000 사명자대회 위하여
3. 대신자 초청 받은이들 위하여
4. 임명받을 사명자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